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 총력

전북교육청,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교원 연수·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 안정적 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0일 브리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학부모 지원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첫번째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4년 3월 1일 전북온라인

인학교가 문을 연다. 올해는 140개 강좌를 개설해 1학기 28개교, 2학기 24개교 등 총 1,2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학교 중 12개교는 소규모 학교(9학급 이하)로 전북온라인학교를 통해 놓여준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 마련과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및 학교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과목을 학습할 기회가 주어진다.

더불어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통해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도 강화

된다.

이를 위해 전북대·원광대·전주대 등 8개 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로,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 된다.

특히 중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2023년부터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단위 학교별 맞춤형 교원 연수를 운영해 2022년 35회 1,828명, 2023년 30회 2,798명, 2024년 27회 648명이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사업과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모둠활동, 자기주도학습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2월 현재 85개 일반고에서 공간 조성이 완료됐고, 2025년에는 8개 학교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입생 대학생활 로드맵 설계

전북대, 11~13일 'JBNU 열품캠프' 진행
전공·진로탐색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1~13일 2박 3일 동안 JBNU 컨벤션센터에서 'JBNU 열품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5학년도 예비 신입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다만, 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와 현장 스케치 영상이 제공된다.

JBNU 열품캠프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열정을 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 및 진로탐색을 위한 계열별 맞춤형 프로그램, 초빙인사 및 선배 멘토 특강,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캠프다. 참가비는 전액 지원되며, 캠프 참가 학생들에게는 큰사람포인트 20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선배들의 멘토링과 축하공연, 전공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입생들이 학문적 탐구 방향을 설정하고,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전공별 강연과 안내부스를 통해 신입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최신 기술과 사회 변화에 맞춘 다양한 사례를 직접 접하며 각각의 전공이 실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신입생들은 조를 이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협업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특히 12일에는 양오봉 총장이 직접 나서 '학생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플레그십 대학'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양 총장은 이 특강을 통해 전북대가 가진 지난 우수성과를 알리고, 학생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전북대의 비전을 예비 신입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심재우 교육혁신처장은 "이번 열품캠프는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을 넘어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보다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전공 탐색, 팀 프로젝트, 명사 특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신입생들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양성기관 전북대에 '등지' |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 개소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가 지난 10일 전북대학교에 등지를 틀었다.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을 통해 설립됐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2031년까지 8년 동안 총 18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대학 3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등이 참여해 지역 지능화를 위한 혁신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체 수요 중심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대 창조1관에 설치된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는 산학협력중점교수 1명, 행정인력 2명, 전임연구원 5명 등 총 8명이 근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 학위취득 및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매년 20명 이상의 ICT 기업 재직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는 등록금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올해 전북대에서는 20명, 원광대에서는 7명 등 총 27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산학 연구과제는 대학교수와 수요기



10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 개소식.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업의 연구인력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대에서 10개, 원광대에서 3개 등 총 13개의 과제가 추진 중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학원 과정에 지능정보융합공학과를 신설하고, 농생명 바이오와 지능형 모빌리티, 첨단융복합소재,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사하고 있는 재직자 대상 인재양성 프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과 지역 혁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2024 지산학연관 성과확산 공동포럼

LINC 3.0 사업단 성과 발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7일 드림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산학협력혁신분야와 LINC 3.0 사업 성과확산 및 지산학협력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INC 3.0 사업단에서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산학협력혁신분야와 LINC 3.0 사업 참여 12개 트랙(10개 학과) 참여교원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울포랜드를 비롯한 지·산·학·연관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산학협력혁신분야와 LINC 3.0 사업단 성과 발표, 지역특화 융합연구과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애로기술지도의 우수 사례 발표, 21개 우수 산업체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특히 지역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방안에 대한 주제로 전북지방중소벤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7일 드림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산학협력혁신분야와 LINC 3.0 사업 성과확산 및 지산학협력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우병훈 총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처기업청의 방민욱 주무관의 특강 및 성과 공유를 통해 RISE 체계로의 성공적인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우병훈 총장은 축사를 통해 " 그동안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3.0 사업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산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교육·연구·특성화·산학협력 등 그간 추진해 온 대학 혁신을 위한 재

정지원사업들이 향후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비전대학교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지역 내 우수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우수 산업체를 확보하고, 확보된 산업체와 협력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 및 배출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이차전지·에너지플랜트 안전교육 인프라 확보

국립군산대 RIS 에너지신산업사업단, VR자료관 구축

최근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은 VR자료관을 구축하여 이차전지 교육과 에너지플랜트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를 갖췄다.

이번에 조성된 VR자료관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이차전지의 원리와 제조 공정을 학습하고, 에너지플랜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와 안전 관리 절차를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실습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VR자료관은 새만금캠퍼스 '캠퍼스관' 2층에 구축했으며 10명이 동시에 VR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권산=이재춘 기자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건강한 급식 지원'

전북교육청, 2025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단설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건강한 급식 지원, 즐거운 영양·식생활교육 지원"을 목표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급식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열린 급식운영으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먼저,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해 식생활관 환경 및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건강한 급식지원을 위해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저탄소 채식의날 실천학교 운영, 우수레시피 개발·보급,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행복한 영양·식생활교육 지원과 관련, 학교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육급식 운영, 개인맞춤형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기건강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체계적인 급식관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